

송원산업, 적자전환 이유 있다!

2003년 과감하게 1000억원 투자 ... 감가상각비 크게 증가

송원산업이 제조원가 상승과 1000억원의 설비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로 채산성이 악화돼 2003년 67억 원 적자전환을 기록했다.

송원산업은 매출액이 2002년 1709억원에서 2003년 1772억원으로 3.7% 증가했고 수출도 2002년 1044억원에서 2003년 1065억원으로 2.01% 증가했다.

그러나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2002년 20억6000만원 흑자에서 2003년 67억2900만원으로 적자전환됐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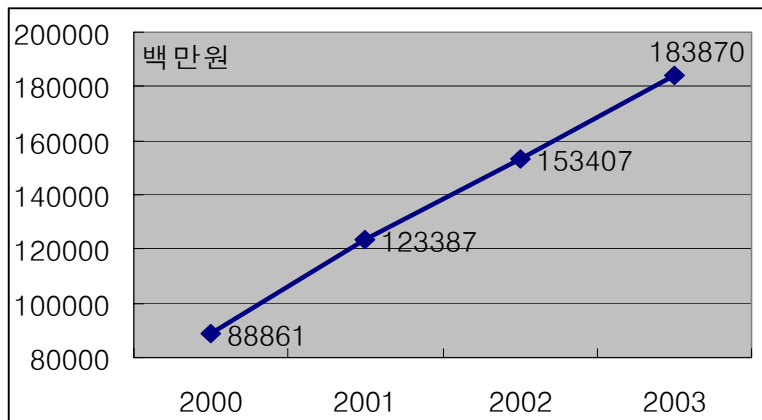
매출원가가 2002년 1520억원에서 2003년 1649억원으로 8.5% 증가해 적자전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.

송원산업 관계자는 “2003년 적자전환은 주요 원자재의 단가인상에 따라 제조원가율이 상승했으나 매출단가는 상승하지 않았고 대규모 설비투자로 인한 감가상각비의 증가로 채산성이 악화됐기 때문”이라고 설명했다.

설비투자는 기존의 산화방지제와 신규사업인 고순도 PTBP(Para-Tertiary Butylphenol)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1000억원을 투자했다.

이에 따라 유형자산 중 기계장치부문이 2000년 887억원, 2001년 1239억원, 2002년 1534억원, 2003년 1839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.

송원산업의 기계장치부문 유형자산 증가추이



2002년 국내 산화방지제 공급기업의 공급량 및 시장점유율은 송원산업이 5500톤으로 65.1%, 아시아첨가제와 Ciba Specialty Chemicals이 각각 1000톤으로 11.8%, 동부아테카가 700톤으로 8.3%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.

산화방지제는 플라스틱을 비롯한 수지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플라스틱 용도로는 폴리올레핀(Polyolefin) 수지를 중심으로 PS(Polystyrene), ABS(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), PU(Polyurethane), POM(Polyacetal) 등의 수지에 사용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4/04/28>